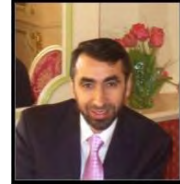


“우리가 예견컨데 미국에 살고 있는 프란치스칸 형제자매들을 자극하여 그들의 관심을 우리 쪽으로 돌릴 수 있다면, 교회 안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에큐메니칼/초종파 운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기대하도 좋을 것이다.”

이맘 모하멘 바스할 아라팰님을
에큐메니칼 / 초종파 위원회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이맘 아라팰님이 미주 재속 프란치스코회, 에큐메니칼/ 초종파 위원회 활동에 참여 하심은
우리의 큰 기쁨이 됩니다.

이맘 아라팰님은 현재 매릴랜드 주의 이슬람의회의 의장으로 봉사하고 계시며, 문화교류 협력 재단의 회장직을 맡고 계십니다. 다마스쿠스 대학에서 정규 교육을 받으셨고, 이슬라믹 영성학자 및 교육자로서의 명성을 높게 쌓아 올리셨으며, 알라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관계를 증진하는데 크게 공헌하고 계십니다. 이분의 활동이 많은 국내 및 국제적 종교를 초월한 활동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이끌었으니, 이 국제적 기구들은 많은 사람들을 결집하여 평화와 협력이 살아있는 세계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2005 년 1 월 현재로 이맘 아라팰님은 25 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미연방 정부의 국무성이 주관하고 있는 국제 의장 프로그램을 통하여 미국 안의 이슬람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분은 매릴랜드 대학교, 노들담에서 현재 가르치고 계십니다.

USA-EIC 뉴스 통신문 중

모하멘 아라팰의 글

“이슬람 소개”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OFS-

이맘

P.S.: 이슬람에 관하여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웹사이트에 오셔서 통신문을 찾아, 이맘 아라팰님이 쓰신
논문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www.Ofsusaecumenicalinterfaith.org

이슬람교 소개

이맘 모하멘 바스할 아라팰이 씀

이슬람의 뜻:

아랍 말의 “이슬람”이란 말은 글자 그대로 절대적인 “항복” 또는 “복종”이라는 뜻이다. 교리로 말한다면, 이슬람은 창조주(God)께 완전히 그리고 진심으로 순종함으로서, 인간이 평화 속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아랍말의 “salam”은 “평화”(peace) 를 뜻하며, “assalamu alaikum”은 “평화가 그대와 함께(Peace be with you)”라는 말로, 모슬람들이 세계 어디서나 주고 받는 인사말이다. 이러한 평화는 분명하게 들어난 하느님의 계명에 대한 능동적인 순종을 통하여 이룰 수 있으며, 또한 하느님의 예언자인 마호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으로도 이러한 지경에 이룰 수 있다. 모하멘은 주후 570 년에, 막카호에서, 압들라호의 아들로 태어났다. 이슬람을 인류 앞에 처음으로 내 놓은 분은 모하멘이 아니라 아담이었다. 그 당시, 각 예언자나 하느님의 사자들이 백성들에게 힘주어 강조한 것은 창조주의 계명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예언자나 하느님의 사자들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합당한 가르침으로, 내 놓은 것은 꾸우란이라고 알려진 마지막 계약(Last Testament)과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최후의 예언자, 모하멘이었다. 꾸우란은 무슬림의 성서이며 이 성서는 잘 알려진 25 명의 예언자들 중에서도 권위있는 다섯 주요 예언자들, 즉 노아, 아브라함, 모세, 예수, 그리고 모하멘에 대하여 자세한 이야기를 말해 주고 있다.

술탄과 성인:

프란치스코는 십자군의 폭력과 종교전쟁을 거부했기 때문에 술탄을 맞나리 갔다. 술타을 맞나고 무슬람 영성을 실제로 체험한 후, 성 프란치스코는 크리스찬과 이슬람이 평화 속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새로운 눈을 뜨므로서 변화를 체험하게 되었다. 자신 앞에 주어진 사명을 깨닫게 되었으며, 또한 그의 제자들도 신앙의 전통을 달리하는 두 민족 사이에 다리를 놓는데 역할의 일부를 맡는 사명이 눈 앞에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 날, 세계 곳곳에 퍼져 사는 모슬림들의 99%가 술탄과 성인의 이야기를 말하지도 않고 들은 바도 없다고 믿어진다.

술탄과 성 프란치스코 성인이 만났다는 이야기는 현재의 모슬림 세계에서 가장 충격적인 주제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아랍 세계에서 이 이야기는 거의 잊혀져 왔다. 나는 수 많은 친구들과 만나는 사람들에게 “술탄과 성인의 이야기에 대하여 알고 있는지 혹은 읽은 적이 있는지?”를 물어 보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어 본 적도 읽은 적도 전혀 없다고 대답하였다 !!!

지금 우리는 슬프고도 위험한 지경에 있다. 우리들은 다만 오사마 빈 라덴, 즈오히리, 그리고 ISIS 등만을 대화의 주제로 삼고 있다. 우리들은, 프란치스코 성인을 영접해서 그분과 대화를 나눈, 술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도 않는다. 서방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들 역시 종교를 초월한, 대화, 그리고 교류를 위한 다리를 놓기 위해 나섰던 프란치스코 성인에 대하여 더 많이 이야기를 주고 받아야 한다.

나는 중동지역에 있는 여러 다른 크리스찬 자료들을 아랍어로 읽어 왔으며, 이 이야기가 성지와 다른 중동에 사는 크리스찬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알게 되었다.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지금이야 말로 우리 신앙 공동체가, 성인을 가까이 맞아드렸던, 술탄의 정신이 보여준 점에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믿는다. 미국에 살고 있는 이슬람으로서, 나는 생각하기를 바로 이때가 이런 이야기를 이해하고, 활용하고, 다듬어서, 종교를 초월하고, 나이나 국적을 넘어서, 형제애, 영성, 그리고 사랑의 참 뜻을 여러 종류의 청중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과정을 준비할 때라고 믿게 되었다. 이 길만이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복잡하게 얽힌 이 세상에서 온 인류가 평화스럽게 살아 갈 수 있는 공존의 길이라고 굳게 믿는다. 지금이 인류역사 속에서 유일하고 중대한 시기임을 분명히 볼 수 있다. 우리는 대중 매스미디어와 탁월한, 그리고 지구상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최신 정보망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도전해야 할 문제는 전지전능하신 분께서 주신 이 축복을 어떻게 활용해 가야하느냐라는

것에 있지 않을까? 우리에게 주어진 지식과 기술력의 축복을 인류 번영을 위해 쓸 수도 있고, 인류 파멸에 쓸 수도 있다. 그런것들을 우리들의 복지를 위하여 쓸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이기심이나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데 쓸 것인가?

바라건데 새로운 시대의 도래가 우리의 눈 앞에 와 있다고 믿고 싶다. 현재 문명의 파괴의 산물의 일부인, 피난민과 이민문제를 눈앞에 둔 오늘 날, 오직 한가지 해결책은, 술탄을 따르는 사람들과 프란치스코 성인을 따르는 사람들, 즉 무슬림과 크리스찬, 사이의 진정한 협력에 달려 있음이 눈 앞에 뚜렷하게 보인다. 감사합니다.

P.S. 이슬람에 관하여 더 알고 싶은 분은 Imam Arafat 의 전체 논문을 읽기를 권합니다.

아래 Website 에서 우리의 뉴스레터를 찾으세요.

www.ofsusaecumencalinterfaith.org 또는 facebook:@ofsusaec - Twitter:@ofs_usa_Eic